

서  
평

## 경계를 넘어 불꽃 속으로

- 시대의 치열한 실천가, 황석영

『수인』(문학동네, 2017)

이규정 \_고려대학교

### 일기당천의 정치 활극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한국이야말로 온갖 정치학 실험의 장이라 말한다. 실제로 한국 현대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현대 정치학이 다루는 거의 모든 것들이 명멸하고 있다. 혹자는 한국 정치를 중앙과 권력을 향한 소용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Henderson 1968), 다른 이는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고 혼재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한국 정치의 특징이라고도 한다(임혁백 2015). 실제로 한국 정치는 봉건 왕조의 몰락과 식민지 지배를 거치며 근대를 맞이하였으며, 세계대전의 혼란과 줄기찬 민족해방투쟁으로 광복을 이루어냈다. 미소 대립의 심화와 냉전의 도래라는 국제정치 대전환기에 남북 각각 국가 건설을 달성하였지

만,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막대한 경제 손실을 초래한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분단이 고착되면서 남과 북은 각각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여전히 전쟁과 평화 사이의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가 수령 중심의 유일 독재체제가 지속된 것과 달리, 한국의 정치는 독재에 대한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으로 제3세계 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직후 절대 상당수 국민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발전을 이룬 제3세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개개인마다 차곡차곡 쌓여든 숭한 사연과 곡절의 보따리가 대하소설로도 모자랄지 모른다.

무릇 소설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이 땅의 소설가들은 정치학자들 못지않게 써야 할 글빛이 많을지도 모른다. 1917년 무정 이래 많은 작가들이 저마다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숭한 이야기를 빚어냈다. 우리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과 정신을 우리의 말과 언어로 지은 이야기를 굳이 외국인의 정서로 평가한다는 것이 모순이기는 하지만, 근자에 들어 세계 최고 권위의 상에 노시인이 꾸준히 후보로 입길에 오르더니 급기야 젊은 소설가의 작품이 큰 상을 받기도 하였다. 앞의 노시인은 반만년 우리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의 부침을 그려낸 고은이며, 다음 이는 아버지가 사진으로 보여준 광주항쟁의 간접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한강이다. 물론 이들 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치열하게 문학을 위한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황석영처럼 과

란만장한 정치 경험을 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황석영은 베트남 전쟁과 히피들의 반전 운동, 워터게이트와 죽의 장막을 걷어낸 핑퐁 외교까지 미국의 주요 정치 사건에 빠짐없이 등장한 포레스트 검프와도 같다. 해방 이전에 만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기에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4·19 혁명의 현장에서 친구를 잃고 남도를 전전하다 해병대에 입대하여 베트남전에 참전, 귀국 후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을 했다가 대하소설 장길산 집필을 위해 해남과 광주에 기거 중 광주항쟁을 맞이하고, 방북과 오랜 망명 생활과 귀국 후 투옥에 이르는 행장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요약이나 마찬가지다. 포레스트 검프는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헐리우드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지만, 저 장황하기 짝이 없는 행장기를 거침없이 나열한 황석영은 펄떡거리는 심장을 갖고 있는 실재하는 사내다.

어느덧 노년을 맞이하는 작가가 두 권, 근 일천 쪽에 이르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전으로 내어놓은 것을 일독하니, 일기당천하는 강호 영웅들의 활극을 보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살아 있는 필자는 주로 미국의 관점에서 정형화된 이론들을 통해 생물처럼 변화하는 정치 현상의 실마리를 터럭만큼이나 잡고자 하는 연구자이다. 매번 논리를 따라가며 이해해야 하는 평소의 독서와 달리 황석영의 자전 읽기는 기말고사를 마친 학생이 읊내 극장에 새로 걸린 영화를 보는 듯 흥미진진하였다. 다만 각각 『경계를 넘다』와 『불꽃 속으로』라고 명명한 자전의 목차가 통상적인 연대기의 순행적 구성과 달리 감옥에서의 상념을 따라 순서가 뒤섞여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작가가 구성한 시간의

순서를 눈치 채기에는 필자의 문학적 상상력과 소양 부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정치학을 공부하는 나름의 특기를 발휘하여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한국정치사를 일별하는 정치학적 해석과 ‘구리’를 펼쳐 보이고자 한다.

## 분단과 전쟁

작가의 집안은 만주에서 평양을 거쳐 서울로 내려오는 긴 여정에도 비교적 먹고 살만한 형편이었다. 어머니는 딸 넷에 아들 둘인 개신교 목사 집안의 딸로 외할아버지는 평양에서 의학전문학교와 고등보통학교 설립을 주도할 정도의 유지였다. 아버지는 황해도 신천 사람으로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고 트렌치코트에 중절모를 갖춰 쓰는 식민지 부르주아지였다(『수인』 1, 391-392). 나름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던 작가의 집안이 월남을 결심한 것은 분단이 강요한 강제이주나 다름없는 것이다. 작가 집안의 이주 여정에는 식민지배의 경험과 과거청산의 차이가 초래한 정치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작가가 출생한 만주 지역은 일제가 벌여놓은 대동아공영권의 구축이라는 제국주의 개발 전략이 잉태되었을 것이며, 평양으로의 이주는 이것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만 어머니의 고향인 평양을 등지게 된 이유는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빛은 기독교와의 자연스러운 이데올로기 투쟁이었을 것이다. 저자 역시 ‘사상’이 문제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수인』 1,

387). 이 시기 북한에서 시작된 식민지 과거 청산을 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월남한 사람은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다만 이 무렵 월남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극우적이고 냉전적 사고에 주박된 서북청년단이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의 가해자가 된 것과 달리 오히려 그들의 참담한 만행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단의 자연스러운 귀결인 전쟁은 유년의 작가에게도 큰 생채기를 남겼다. 전쟁 직후 돌아온 동네에서 ‘꼼배네’라 불리던 걸인 가수의 구걸은 전쟁 통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었으며, 쥐불 놀이에 움막이 타버려 생을 마감한 꼼배네 아낙의 어이없는 죽음은 폐허가 된 경제의 작은 토막에 불과할 것이다(『수인』 1, 441-443). 황해도에서 순사보를 했다는 작가의 친구 영식이네 집에서 출몰했다는 귀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환영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침 영식이네 집은 영등포경찰서 사찰계 분실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전쟁이 남긴 살육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수인』 1, 453-455).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군인을 제외한 남한의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5천 명, 실종자가 30만 3천 명, 학살된 사람이 12만 9,000명, 부상자가 23만 명에 이르고, 북한은 200만 명(모든 피해자 포함)에 이른다. 이처럼 한국전쟁 이래로 내면화된 폭력은 베트남전쟁으로 심화되면서 몇 년 뒤에 광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백주의 살육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수인』 2, 216). 작가는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단편 「아우를 위하여」나 『모랫말 아이들』이란 책을 통해 서서히 극복하고 베트남전 파병으로 일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실체를 접하며 문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전쟁과 분단의 더욱 불행한 후과는 남북한의 극단적 대립과 자유로운 사고를 가로막는 피폐해진 상상력과 마음이었다. 작가는 사람들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주술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참담한 과거는 글을 쓰는 사람조차도 웅크리게 하는 모양이다. 뉴욕 망명 시절 황석영과 잠시 마주친 작가 이문열은 생각과 행동에서 스스로의 틀을 만들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문열은 월북한 아버지의 소식을 물어 보았고, 황석영은 UN에 파견된 북한 대표부를 통해 직업과 재혼 사실 등을 꼼꼼하게 전달해주었다. 이 얘기를 듣고 왈각 눈물을 쏟아낸 이문열에게 북의 낚시를 조심하라는 조언까지 전달하였으나, 오히려 월북 권유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문열이 물귀신 같은 이념의 뒷에서 벗어나 작가로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장면(『수인』 1, 359-362)은 분단이 강제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 독재와 천등벌거숭이의 저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혼란과 비정상의 정치 상황은 제3세계 국가들이 흥역처럼 치르던 독재를 초래하였다. 전쟁의 와중에서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독재의 길로 접어든 이승만 정권이나 3선 개헌이 모자라 종신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은 유신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포기하였다.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맞이한 짧았던 서울

의 봄은 광주 시민의 피를 뿌린 채 전두환 신군부정권으로 이어졌다. 4·19 혁명이 창출한 민주주의의 경험은 비록 미완으로 남겨졌지만, 우리 민중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기어이 자유와 민주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온통 미국식 사고로 무장하고 오리엔탈리즘의 편견에 사로잡힌 정치이론은 독재정권의 등장을 신생 국가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뒤늦게 전 세계적인 민주화 흐름을 “제3의 물결”이라 제멋대로 명명하고(Huntington, 1991),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민주주의 이행론(transitology)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한국 정치 연구는 우리만의 고유한 속성을 강조하는 한국적 특수성이 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이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정치학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에도 두루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황석영의 자전은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얼마간의 허세를 보탠다면 “천둥벌거숭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안해본다. 철없이 두려운 줄 모르고 거칠 것 없이 행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쟁취한 자유와 민주는 천둥벌거숭이와 닮았다. 작가는 어머니의 성화에 힘입어 당시로서는 제법 명문이라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고교 시절은 단편 소설의 집필에 몰두하거나 등산반에 들어가 북한산 어느 바위에 붙어 있기가 일쑤였다. 질풍노도의 학창시절을 보내던 중에 4·19혁명의 한복판에서 친구 안종길의 죽음을 목격하였다. 이후 친구의 유고시집 『봄·밤·별』을 발간하고 공부와는 무관한 무전여행을 하며 제주도 4·3 항쟁의 아픔을 알게 되었으며(『수인』 2, 36), 고전음악실을 들락거리며 문학과 예술에 몰

두하더니만(『수인』 2, 37) 급기야는 가출을 한 뒤 토굴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수인』 2, 45). 작가의 거칠 것 없는 행로는 방북과 망명에서 돌아 오자마자 체포되어 안기부의 대공수사실에 끌려왔을 때조차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수십 명이 둘러싼 질문 공세 와중에 날아든 주먹을 기세 좋게 피하더니, “법대로 처리하면 될 거 아냐? 그래 어디 고문해봐라, 맞아줄 테니까”라고 일갈하는 모습(『수인』 1, 11)은 천둥벌거숭이가 아니면 무엇이라. 이뿐만 아니라 작가는 전태일을 접하고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을 결행했으며(『수인』 2, 254-282), 『장길산』의 연재를 위하여 한국일보 사장에게 받아낸 거액의 자료 조사비를 동료들과의 술추렴으로 날린 뒤 재차 받아내었는가 하면(『수인』 2, 309-311), 광주 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출간했으며, 급기야는 1989년 방북하여 1994년까지 베를린과 뉴욕 등지에서 오랜 망명 생활을 전전하기도 하였다.

추측하건대 작가의 중형무진 거칠 것 없는 행보는 북한 방문 당시 처음 만난 조선노동당 당원들에게 산골 아바이, 훈장, 머슴 동지라고 제멋대로 별명을 지어 불러버리는 일화와 같은 낙천적인 성격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수인』 1, 183). 여담이지만 만약 황석영이 김일성의 제안대로 북한에 남아 있었다면,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 익숙한 지금의 경향과 구분되는 가장 치열한 북한 민주화 운동의 주창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국제정치의 변화가 초래한 갑작스러운 해방과 불완전한 친일 청산,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채처럼 쌓아올린 독재권력과 기득권 구조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저항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거칠 것 없는 천둥벌거숭이와도 같은 민중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라는 공산당 선언의 경구가 프롤레타리아의 모순에 대한 인식과 각성을 전제한 것과 달리 천둥벌거숭이들의 저항은 세련된 학습과 의식화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와 저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의 거리에서 무심코 불쑥 도도하게 솟아난 민중의 저항. 이 모든 저항이야 말로 세련된 격식을 차릴 것이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천둥벌거숭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렇게 쟁취한 민주주의는 가히 천둥벌거숭이 민주주의라 칭할 만하다. 이 천둥벌거숭이 민주주의의 꾸밈없는 모습은 지난 겨울 광화문과 전국의 광장에서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고, 비장하면서도 즐거운 승리의 촛불 혁명으로 재현한 것이다.

## 다시 문학이라는 집으로

글을 마무리할 즈음에서야 황석영이 스스로를 수인이라 규정하고 손쉬운 연대기적 서술을 대신한 이유를 어렵뜻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자는 경계를 넘어 불꽃 속으로 표표히 걸어들어 간 자유로운 사람이다. 젊은 시절에 유치장을 경험했으며 정보 당국의 요시찰 대상으로 기관원들의 감시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북한에서조차 주석의

의중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얼마간 자유를 구속당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돌아오기까지 베를린과 뉴욕을 전전하며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경계인으로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작 법률이 규정하는 수인으로서의 기간은 햇수로 6년, 만으로는 5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 방북을 결심한 시점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감옥에서 여섯 해를 거치며 무르익어 가는 상념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다시 유년에서 시작하여 광주에서 마무리된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재배열한 작가의 행로는 광주와 방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소 복잡한 구성은 “민주화와 통일은 한몸이다”라는 작가의 오랜 생각(『수인』 1, 360)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운동이 한창 활발하던 시기였던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의 주요 논쟁은 한국사회의 핵심 모순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조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외세에 의해 민족이 갈라져 있는 민족 모순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공할 자본의 공세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계급 모순 해결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은 서로 타협점을 찾기가 난망하였다. 양측의 논쟁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사분오열되더니, 학생회 구성을 위한 학내 선거에서는 서로를 군부 파쇼나 매관자본만큼이나 적대시하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다. 치기어린 순진한 열정과 이데올로기의 과잉이 초래한 운동 세력 내부의 분열은 민주화의 과실을 신군부가 독차지하는 우를 범하였고,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방북으로 통일운동의 상징이 되어버린 작가는 기실 돌아보면 오

래전부터 계급 문제를 인식하고 『객지』를 발표하고 현장 노동운동에 가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즉 세상을 바꾸는 것은 관념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현장에서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황석영에게 있어 민주화와 통일은 나눌 수 없는 실천의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다.

수인이라는 제목이 은유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만이 아니라, 분단과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작가는 정량대로 나오는 교도소 배식과 정해진 운동시간을 보장받기 위하여 감옥에서 싸움을 벌였다. 감옥 바깥의 우리들도 헤어진 북의 가족을 만나고 고향 땅을 밟아보기 위한 바람과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남북한의 대립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은 고사하고 이산가족 상봉조차 중단된 상황이다. 노동문제 역시 통계 수치가 자랑하는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실업의 위협, 갑질과 을의 눈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모두는 수인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현대사의 주요 현장을 빠짐없이 지켜내며 결국 문학이라는 집으로 돌아온 작가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건강과 건필을 기원한다. ~~XXXX~~

## 참고문헌

- 마르크스, 칼·프리드리히 엥겔스(Karl Marx & Friedrich Engels). 2005. 『공산당 선언』. 김기연 옮김. 새날.
- 이광수 지음, 김철 교주. 2003. 『바로잡은 무정』. 문학동네.
- 이문열. 199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민음사.
- 임혁백. 2015.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 of 다중적 시간』. 고려대학교 출판부.
- Henderson, Gregory. 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